오지환, 오리궁둥이가 고마운 이유

TALK! TALK! 베이스볼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그런데 봄을 지나 바로 여름으로 접어드는 듯한 느낌이네요. 4월까지만 해도 겨울 점퍼를 입어야 할 정도로 이상저온 현상이 계속되더니, 봄 기운을 음미할 새도 없이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프로야구 순위싸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뒷얘기를 전하는 ‘톡톡(Talk Talk) 베이스볼’은 엉덩이 때문에 살아난 LG 오지환의 사연부터 시작합니다.

힙 업 엉덩이 덕분에 부상 피한 오지환

●…LG 오지환은 100만불짜리 엉덩이를 가진 선수로 유명합니다. 약간 오리궁둥이인데, 제대로 ‘힙 업’이 되어 있죠. 뒤에서 보면 마치 중남미 선수들처럼 엉덩이가 허리에 찰싹 붙어있는 듯한 자태입니다. 그런데 오지환은 10일 사직 롯데전에서 ‘업’된 엉덩이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9회초 타석에서 롯데 구원투수 강영식이 던진 볼에 엉덩이를 맞았는데요. 통증이 심한 듯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꼬리뼈 쪽을 맞은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기장에 만난 오지환은 “엉덩이에 제대로 맞아서 허리까지 통증이 올라왔다”면서도 “다행히 경기 출전에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계방송 화면상으로는 꼬리뼈를 맞는 것처럼 보였다”는 기자들의 말에 오지환은 “다행히 꼬리뼈는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 비밀을 털어놓더군요. “볼이 꼬리뼈까지 올 틈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볼이 꼬리뼈를 향해 날아와도 탄탄한 엉덩이가 이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의 엉덩이가 얼마나 ‘업’되어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박석민의 ‘모범답안’에 혀 내두른 류감독

●…12일 포항 KIA전을 앞둔 삼성 덕아웃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삼성 류중일 감독은 “하루에 4안타를 친다고 생각해봐라. 아무리 4시간 넘는 게임을 해도 절대 피곤하지 않다. 아파도 아프지 않고 야구가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멀리 있던 박석민을 불렀습니다. 허리 부상 후 요즘 방망이 부진을 겪고 있는 중심타자 박석민은 마침 이날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 상태였죠. 한 타임 쉬어가라는 류 감독의 뜻이었습니다. 박석민을 부른 류 감독은 대뜸 물었습니다. “요즘 야구 재미없지?” 능글능글한 성격의 박석민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팀만 이기면 재미있습니다.” 류 감독이 “공식 코멘트 말고 진심을 말해봐”라고 찔러봤지만, 박석민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팀만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박석민이 살짝 한발 물러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운동하러 오기 전에 (라인업에서 빠지는 것을 모르고) 아내에게 (안타) 두 개 칠 거라고 큰소리 뻥뻥 쳐놨습니다.” 라인업 제외가 조금은 섭섭하다는 표정이었죠. 류 감독은 기대했던 답이 나왔다는 듯 껄껄 웃더군요. 그런데 박석민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시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해 덕아웃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그래도 야구는 재미있습니다. 팀만 이기면 저는 못 나가도 재미있습니다!”

은행원이 될 뻔했던 김경문 감독

●…신생구단 NC의 1군 데뷔를 이끌고 있는 김경문 감독의 첫 번째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이면 열 “프로야구선수”라는 답을 합니다. 그러나 김 감독이 사회에서 처음 월급을 받았던 곳은 다름 아닌 은행이었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김 감독이 고려대를 졸업하던 1982년에 때마침 프로야구가 출범해 원년 멤버가 됐지만, 1980년대 초반 포수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던 그는 당시 명문 실업팀이었던 한일은행으로부터 입단 제안을 받았답니다. 한화 김성한 수석코치가 한일은행 입단 동기가 될 뻔했는데, 대학 4학년 초에 명동 지점에서 함께 교육도 받았다고 하더군요. 지금으로 치면 수습, 또는 인턴사원의 개념인데요. 김 감독은 “야구선수지만 똑같은 은행원이기 때문에 돈을 세서 기록하는 법, 그리고 고객들에게 인사하는 법 등을 교육받았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었지만 월급도 받았다”며 그 시절을 추억했습니다. 당시에는 실업팀에서 은퇴한 뒤 지도자의 길을 걷지 않고 일반 은행원이나 회사원으로 변신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중후한 매력이 있는 김 감독이기에 ‘뱅커’도 썩 잘 어울렸을 것 같네요.

‘코끼리 감독’은 자학개그의 달인

●…“송창식? 야수가 에러해도 흔들리지 말라고 마운드에 말뚝을 박아 묶어놓을까?”, “유창식? 선발 안 되겠어. 선발 나가면 머리가 띵 하나봐. 아주 미치겠어”, “최진행이 살아났다고? 무슨 죽다가 살아나는 약을 먹었나봐”, “타자는 타격왕 3번, 투수는 10승 3번은 해야 CF에 나갈 수 있는 스타가 되는 거 아냐?”, “나성범? 난 우리 선수도 파악을 못 했어. 머리가 이제 끝났나봐.” 한화 김응룡 감독이 최근 취재진과 나눈 대화입니다. 기자가 질문만 하면 김 감독은 즉흥적으로 자학개그를 쏟아냅니다. 김 감독은 해태와 삼성 시절 표정 하나, 행동 하나만으로 선수단을 장악했던 카리스마의 화신이었죠.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덕아웃에서 외국인선수와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의 왕성한 혈기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요즘 김 감독은 과거의 무뚝뚝함이나 카리스마 대신 온화한 표정과 포복절도할 유머로 취재진의 배꼽을 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유의 단순 화법은 변함없지만, 자학개그가 가미되면서 매우 절제되고 함축적인 유머가 발산됩니다. 세월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아무튼 ‘코끼리 감독’의 변신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포츠1부

베이스볼 프리즘

운동선수에게 군대는 무덤? 예비역의 돌풍 모르시나요

박희수

유희관

오현택

흔히 스포츠선수에게 군대는 ‘무덤’이라고 여겨진다. 프로야구선수에게도 마찬가지다. 내 자리가 없는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 2년여의 공백을 딛고 다시 1군 무대에 서는 일이 쉽기 않기 때문이다. 실력이 최고조로 올라오는 나이에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요즘 프로야구계에는 ‘예비역 돌풍’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군 입대를 앞두고 확실한 목표를 세웠고, 복귀 후 ‘더 멀리 뛰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SK 박희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상무에 입단하기 전 무명에 가까웠지만, 상무에 다녀온 뒤 강력한 투심 패스트볼(투심)을 앞세워 1군 주축 투수가 됐다. 투심을 장착한 이유는 ‘오른손 타자의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구종이 필요하다’는 당시 SK 코칭스태프의 조언 때문이었다. 그도 ‘군대에서 기필코 나만의 결정구를 만들어 돌아온다’며 이를 악물었고, 상무에 들어간 뒤 새 구종을 열심히 연마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았다. 그는 국내 투수들 중에서 손꼽히는 투심을 던지며 국가대표로 성장했다.

두산의 새 마무리로 안착한 오현택과 필승계투 유희관도 ‘군대’를 선수생활의 터닝 포인트로 삼았다. 오현택이 올 시즌 ‘오동열(오현택+선동열)’이라고 불릴 정도로 1군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상무에서 장착한 서클체인지업 덕분이다. 그는 “군대에 가서 싱커나 체인지업 같이 떨어지는 공을 만들어오겠다고 생각했다”며 “2군에선 성적에 상관없이 구종을 시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공을 던지면서 감각을 손에 익혔다. 지금 좌타자를 상대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귀띔했다.

유희관은 살을 뺐다. 그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순발력이 떨어지고 체력 부담이 커진다. 군대에 가기 전 제1목표를 체중감량으로 잡았고, 웨이트트레이닝과 러닝으로 8~9kg을 빼고 체력도 키웠다”고 밝혔다. 지금이야 편하게 말하지만, 사실 ‘제대 후 방출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상무시절 선발로 계속 경기에 나가면서 타자들을 상대하는 요령을 배운 것도 큰 자산이다.

이들만이 아니다. 경찰청에서 배터리를 이뤘던 넥센 손승락과 두산 양의지도 전역 후 각 팀의 주축선수로 자리매김했고, 두산 허경민 민병헌과 NC 모창민 등 많은 예비역들이 1군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군대에 간다고 무조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유희관은 “상무나 경찰청에서도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2년간 쉰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얻을 게 없고, 하나라도 배우자는 자세로 임해야 얻는 게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요인은 요행이 아닌 노력이다. 예비역들의 이유 있는 반란이 의미 있는 이유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편집 | 심승수 기자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세상에 ~~ 이런치킨이!!, “아이스콘치킨” 없어서 못판다~!
총 창업비용 970만원으로 50곳 판매점 운영, 월수익 500만원 도전!!

아이스크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치킨을 먹는다, 치킨시장 발칵~!!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진지 오래, 모처럼 한줄기 희망의 빛처럼 제대로 된 창업아이템이 나왔다. 아이스크림처럼 까서 먹는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아이스콘치킨이바로 주인공이다.

■ 캐릭터 마케팅으로 대박 이뤄내

아이스콘치킨은 요즘 시중에서 잘나가는 맛~ 바베큐, 닭강정, 치즈 세가지 알찬 메뉴구성, 한참 영양보충이 필요한 시기에 배를 채울 수 있는 많은 중량, 한입에 쏙 들어가는 적당한 크기, 아이들이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과 인기웹툰 ‘블랙젤리’ 캐릭터를 마케팅으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100% 국내산 닭으로 만들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아이스콘치킨 만의 독특한 생산기법으로 상온에서도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다. 아이스콘치킨 제품의 특성상 냉동고를 따로 비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면이나 공간 활용도가 좋아 판매처에서 선호하는 제품중 하나이다. 조리가 필요 없어 PC방 매출 1순위 제품이다. 판매점에서 날개돋친듯 팔리고 있는 아이스치킨은 PC방, 편의점, 플스방, 학원매점, 마트, 학교앞 분식집 등에서 나날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업전망이 매우 밝다.

경험이 없어도 50곳 판매점에서 매일 수익발생

■ 점포가 없어도 수익은 최대로

이 회사에서는 ‘아이스콘치킨’의 국내유통을 담당할 시, 군, 구 독점사업주를 모집중이다.

창업비용은 970만원으로 지역독점권, 장소섭외비용, 홍보비, 초도물품대, 제품진열대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 계약후 본사 직원이 투입되서 50곳의 초기거래처를 선정하여 납품, 진열까지 완료한 뒤에 인계하기 때문에 초보자나 퇴직자, 주부, 투잡족들에게도 어려움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사업운영의 장점은 따로 매장을 둘 필요가 없어 임대료 비용이 들지 않으며 적은 자본으로도 일반 사무직 연봉이상 돈을 벌 수 있다.

본사는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독점권을 철저하게 부여하고 있다. 아이스콘치킨은 일년 내내 꾸준히 잘 팔리지만 시원하게 먹는 제품의 특성상 여름철 특수를 대비해 벌써 부터 창업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불경기속 나홀로 호황을 누릴만한 제품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시,군,구 단위 독점사업주 모집

www.iceck.co.kr
NAVER 아이스콘치킨 검색
창업문의 1600-1524